

외국어교육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

교양과 선형성
조교수

I. 서론

오늘날, 국제화 시대에 외국어교육의 필요성은 나날이 더해 가고 있다. 따라서 교육효과의 극대화를 이루기 위해 각 교수법 이론 및 적용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고찰은 필요하다 하겠다.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영어교육에 도입된 교수법들은 두 개의 흐름으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영문해석법」 또는 「영문독해법」이라 불리워진 것으로 오랫동안 채택되고 있는 문법·해석 위주의 grammar-translation method의 흐름이며, 또 하나는 이것에 대한 끊임없는 반동으로 「신교수법」이라는 이름으로 외국에서 도입되어 온 여러가지 교수법의 흐름이다.¹⁾

문법과 해석위주의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외국어를 교수하고 학습함에 있어서 모국어를 교수 매체로 이용하는 것으로 복합언어체계교수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방법은 문자 언어를 학습의 주제로 하고 문법을 강력한 단서로 삼아 학습자가 이미 습득한 모국어로 번역하여 의미를 이해시키려는 것이다. 반면에 신 교수법들은 모국어를 직접 개입시키지 않고 별도로 또 하나의 언어를 교수하고 학습한다는 점에서 등위언어체계교수법이라 할 수 있으며 이 방법은 유아의 모국어 습득 과정에 그 이론적 근거를 두기 때문에 음성 언어를 학습의 주체로 하고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자연 상태의 언어습득 순서를 강조한다.

이 두 교수법의 흐름은 이론적으로 서로 접근된 일이 거의 없이 평행하게 흘러왔다. 즉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문자 언어를 중심으로 하고 모국어를 적극 이용함으로써 교수 효과를 노려왔고 신 교수법들은 음성 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모국어를 배제함으로써 교수 효과를 노려왔다.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나 지금까지 외국에서 개발되어 우리 나라에 소개된 신 교수법들은 모두 나름대로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리하여 근래에는 하나의 교수법만을 고수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들을 넴철히 분석 평가하고 용의주도하게 절충하여 교사 나름대로 최선의 교수법을 세워야 한다는 절충주의의 이론이 관심을 끈다. 절충주의에 의하면 어떤 특정한 방법론의 타당성은 그 이론적 강도보다는 특정의 목표와 상황에 대한 적합성에 의하

¹⁾ 조석주, 영어교육 제 14 호, 한국영어 교육학회, p.61(1977).

여 결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²⁾ 그런데 최근 외국에서 일고 있는 절충주의 이론은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해서만은 비판적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오늘날 이성주의 언어 및 언어 학습이론과 전통적인 교수법 사이에 강한 유사성이 시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H.Prator (1969)는 그의 절충론에서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³⁾ 심지어 이성주의 언어 학습이론을 적극 지지하노라고 자처하는 Diller(1971)조차도 이성주의 입장에서 Andio-lingual Method, Gouin의 Series Method, 그리고 Berlitz와 De Sauze의 Direct Method를 검토한 후 이 세 가지 방법의 합성을 시도하였으나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해서는 잘못된 이성주의 교수법이라 혹평하고 고려의 대상에서 제외시켰다.⁴⁾ 그리고 절충주의 입장에서 청취력의 훈련을 강조하는 James Asher(1969), Wintz and Reeds(1973), Postovsky(1974) 등도 문법 설명이나 번역을 금지하고 있으며 James Asher는 외국어 학습에서 번역이 비효율적임을 실험으로 증명하기까지 하였다.⁵⁾ 이러한 외국의 절충주의 이론을 자세히 살펴보면 외국어 학습자의 언어 습득 과정을 유아의 모국어 습득 과정과 동일시하거나 그와 유사한 것으로 보는 신 교수법 이론의 태두리 내에서만 절충과 수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완전히 무시함으로써 불완전하고 비현실적인 절충으로 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전통적인 교수법을 완전히 폐지하고 신 교수법으로 대체하려는 시도나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배격하는 외국의 절충주의의 의존하려는 시도는 문제에 대한 바람직한 해결책이 될 것 같지 않다. 그보다는 대다수의 영어 교사들이 교육현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새로운 언어 및 언어 습득 이론을 우리의 교육 현실에 비추어서 냉철히 분석 평가한 후에 점진적으로 전통적인 교수법의 단점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새로운 언어 및 언어 습득 이론을 도입하기에 앞서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는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재고하고 그 진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문법 설명과 해석을 위주로 하는 전통적인 교수법을 새로운 언어 및 언어 학습 이론에 입각하여 재검토하고 재정립할 것을 주장하면서 그 이유로서 이상기도 다음과 같은 현실적인 문제를 제시한 바 있다.⁶⁾

“이와 같은 이론과 실재의 이원적 평행상태는 우리 나라 외국어 교육이 지닌 큰 문제점이다. 여기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교사, 교실현장 및 이론의 세 가지 면에서 가장 큰 요인을 찾아낼 수 있다. 첫째 교사의 문제이다. direct Method나 audio-lingualism 을

²⁾ 송요인, 영어교육 제 16 호, 한국영어 교육학회, p.8(1978).

³⁾ 이상기, 영어교육; 제 12 호, 한국영어 교육학회, p.131(1976).

⁴⁾ Diller, K. C., *Generative Grammar, Structural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Rowley; Newbury House Publishers, pp.1~8, (1971).

⁵⁾ 이계순, 영어교수법, 한국영어 영문학회, pp.152~167(1979).

⁶⁾ 이상기, 영어교육 제 12 호, 한국영어교육학회, pp.134~135, (1976).

사용하기 위해서는 교사가 native speaker 이거나 목표언어에 대한 native-like fluency 를 가진 speaker 가 아니면 안된다. 우리 나라에서 대부분의 교사들은 이와 같은 능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둘째로 우리나라 교실의 평균학생수는 너무나도 많다. 물론 group practice 기타 교사 개인의 기법으로서 어느 정도 이 제한점을 극복할 수 있겠지만 pattern practice 나 direct method 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렵다. 또한 가르쳐야 할 교육분량도 문제여서 전통적 교수법에 비해 direct method 나 pattern practice 는 이 점에 있어서 많은 제한을 받는다. 끝으로 이론적인 문제인데 교사들이 성과면에 있어 audio-lingual method 에 대해서 회의적이었으며 실제경험을 통해서 문법해석식교수법이 월등히 낫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다. 한국외국어교육의 시급한 문제는 교수에 있어서 이론과 실제를 합치시키는 일이다.”

이런 면에서, 우리나라 대다수의 영어 교사들이 교육 현장에서 채택하고 있는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가치를 인정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외국어 교수법을 특성별로 크게 나눈 문법·번역식 교수법, 직접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 그리고 변형생성방법에 대한 이론 및 장·단점을 고찰하여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재 조명해 보고자 한다.

II. 외국어 교수법의 변천

외국어 교육에 나타난 수많은 교수법을 특성별로 크게 나누어 이를 역사적으로 살펴본다면 라틴어와 희랍어를 가르치는데 주로 쓰인 문법번역법은 문어의 학습에 치중하였고 지식위주의 학습을 전개해 나갔다. 이것이 19C 경에 다른 현대 언어 학습에도 활발히 사용되었는데 이 교수법은 말보다는 글을 먼저 가르쳐 보고자 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한 반동으로 19C 말부터 20C 초반에 걸쳐 외국어 교육에서 개혁을 추진하여 직접교수법이 나타나 주로 구어에 관심을 두고 문법규칙을 경시 내지는 무시했다. 이 방법은 교실에서 배우고자 하는 외국어만을 쓰도록 제안되었는데 특별히 어떤 언어학파에 속하지는 않았다. 다시 말해서 글보다 말에 중점을 두었다.

1940년대 이후 직접교수법을 일부 수정하고 제창된 것으로 오늘날까지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청화식 교수법이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론적 기틀을 잡기 시작한 구조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크게 받아 발전하였다. 언어와 언어 습관에 대한 보다 과학적인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문법번역 방법의 단점이 나타나고 개혁의 소리가 높아져 청화식 교수법이 과학적 이론으로써 각광을 받고 급격히 보급되게 되었다. 이것은 1950년대와 60년대에 그 절정을 이루었다. 교수방법은 먼저 말을 가르쳐야 한다는 데에서 습관형성(habit formation) 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조주의 학자들과는 입장을 달리하면서 인간의 타고난 인지능력을 내세우면서 인지심리학을 바탕으로 행동주의에 도전하여 규칙의 형성과 적용에 중점을 둔 변형생성방법으로 발전해 갔다. 이 교수법의 중심개념은 규칙화된 글의 습득을 강조한다.

이상과 같은 두드러진 각 교수법을 변천과정에 따라 차례로 더 깊이 조사하기로 한다.

1. 문법번역식 교수법 (Gramma Translation Method)

19C 말 구·미 각국에서 라틴어 또는 희랍어 같은 dead language를 가르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되었기에 Traditional Method 또는 hearing이나 speaking을 위주로 하는 방법을 New Method라고 하는 것에 대해 이것을 Old Method라고도 한다.

이는 언어를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문법과 번역활동을 중시하여 품사를 정의하거나 rule 암송이 위주였다. 따라서 발음이나 말하기 교육은 도외시 되며 Teaching Language보다는 Teaching about the Language 식의 언어 교육이었다.

Robinett는 이 교수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Traditional : Use of Latin model for grammatical explanations; emphasis on reading and writing rather than on speaking; learning about language through grammar-translation rather than learning to use the language for communication; language learning as a mental discipline with memorization of vocabulary lists and grammatical paralogisms given high priority.⁷⁾

이 방법은 전통적 문법의 언어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언어의 규칙, 정의, 연습 등을 강요하며 이른바 올바른 어법을 강조하는 것을 가르치며, 둘째, 모방을 기준으로 하여 교양이 낮은 사람이 교양이 높은 사람과 접촉하게 될 때 환경의 압력으로 인하여 교양이 높은 사람의 문법을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이다. 세째, 모든 세련된 용법을 존중하여 정통적 규칙이나 용례를 어디까지나 지켜나가려는 보수주의적인 언어의 순수성을 강조하는 문법이다. 문법적 불규칙성을疎어하며 It's me나 People are… 등의 용례를 꺼려하고 언어의 변화를 허용하지 않은 것을 그 특색으로 한다. 특히 18C에는 심한 편이어서 언어의 변화를 학자들은 타락으로까지 보고 있다. Cochran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In the eighteenth century scholars still believed that Greek or Latin were the ideal languages, and that where modern languages differed from them it was a sign of "vulgarism, corruption, and linguistic decay." They based their theories of language entirely upon Latin and "Started the grammatical features of language in philosophical terms" taking no account of the structural differences between languages, but obscuring it by forcing their descriptions into

⁷⁾ Robinett, B.W.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p.160(1978).

the scheme of Latin grammar.⁸⁾

이 교수이론은 19C 이후 활발해진 교육에서도 그대로 받아들여져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방법이기도 하다. 그 교육목적은 무엇보다도 첫째, 고전문학을 이해하고 감상하며 둘째, 고전어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의 모국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세째, 난해한 고전어 학습을 통하여 학습자의 전반적인 학습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두었다.

Rivers는 이 방법이 교실에서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aims at inculcating an understanding of the grammar of the language, and training the student to write the new language accurately by regular practice in translating from the native language. It aims at providing the student with a wide literary vocabulary, often of an unnecessarily detailed nature. It aims at training the student to extract the meaning from texts in the new language by translation into the native language and, at advanced stages, to appreciate the literary significance and value of these texts. These aims are achieved in the classroom by detailed grammatical explanation in the native language, followed by practice on the part of the students in writing paradigms, in applying the rules they have learned to the construction of sentences in the target language, and in translating consecutive passages of prose from the native to the target language.⁹⁾

2. 직접식 교수법 (Direct Method)

오랜 전통을 가지고 수세기에 걸쳐 사용되어온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모순점이 드러나면서 비판이 일어났다. 모든 언어작용을 번역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언어학습의 기본 목표인 통화력을 기를 수가 없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서 문법번역방법은 thinking in English way를 방해했던 것이다. 이런 결점을 고쳐 모국어로 번역하거나 문법을 가르치지 않고 영어시간에는 영어로 연습을 하자는 것이 직접식 교수법 또는 외국어 중심 교수법이다. 따라서 실물이나 그림을 보이거나 동작을 보여 주므로써 말을 가르치려는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New Method, Natural Method, Reformed Method, Anti-grammar Method 등의 학습방법

⁸⁾ Cohran, Anne, *Educational Services*, Washington, p.10,(1952).

⁹⁾ Rivers, Wilga M.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 London: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29,(1981).

로 나타났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Direct Method로 불리워졌다.

Robinett는 그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A Strong reaction against this emphasis upon the written language in traditional linguistic studies and against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ology laid the foundation for the direct method which concerns itself primarily with the spoken language and pays little or no attention to grammatical rules. Only the language being learned is used in the classroom in this approach, which has never been closely associated with any particular 'school' of linguistics.¹⁰

학습 현장에서 모국어를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외국어로 생각하고 외국어로 말하고 학생들로 하여금 대부분의 활동을 시키는 교수방법이다. 즉, 학생이 외국어의 단어나 어구를 실물이나 동작과 결부하여 학습할 것을 주장했다. 이 점을 Rivers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Speech preceded reading, but even in reading students were encouraged to forge a direct bond between the printed word and their understanding of it, without passing through an intermediate stage of translation into the native language. The ultimate aim was to develop the ability to think in the language, whether one was conversing, reading, or writing.¹¹

3. 청화식 교수법(Audio-Lingual Method)

Aural-Oral Approach라고도 하는 것으로 그 명칭이 그렇듯이 듣기, 말하기 교육을 중시한다.

19C 말부터 20C 초반까지 팽배한 문법번역방법의 압도적 영향 때문에 직접식 방법이 일 반 교실에까지 보급되지 못하고 1940년대 이후 큰 변혁을 맛보는데, 청화중심교수법의 발전은 1930년대부터 미국에서 이론적 기초를 잡은 구조주의 언어학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아 나온 교수법이다.

언어의 1차적 형식은 구두언어이며 언어능력은 문법지식이 아닌 습관에 의해 형성된다는 원리에 입각하고 있다. 학습은 제시된 자극에 대해서 기대되는 반응을 보이도록 조건화(conditioning)된 환경 속에서 거의 무의식적인 반응을 학생들이 나타낼 수 있도록 철저히

¹⁰ Robinett, B.W. *op.cit.* p.162.

¹¹ Rivers, *op.cit.*, p.32.

연습하는 과정으로써 반복과 암송 (mim-mem)에 의한 문형연습이 중심이 된다.

구조주의 언어학은 Ferdinand de Saussure(1857 ~ 1913)에서 태동하여 Geneva 학파, Prague 학파, Copenhagen 학파로 대륙에서 발전해 갔으나, 미국의 구조언어학은 Yale 대학을 중심으로 독특하게 발전하여 갔다. 특히 분포주의적 분석방법을 쓴 것으로 유명한 최초의 구조주의 학파는 Bloomfield에 의해 창설되었다. 이로서 Bloomfield는 그의 스승인 Sapir 와 함께 기술주의의 토대를 세웠다.

청화식 교수법은 구조주의 언어학의 기본적 입장을 고수했다고 보는데 이들의 입장은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의 1 차적인 형식은 구어이고 문어는 2 차적인 것이다. 둘째, 모든 언어는 각각 독자적인 체계를 지닌다. 셋째, 옳은 문법은 문법학자들이 정하는 규칙에 의해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말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된다. 네째, 언어사용 능력은 문법적 지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습관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다.

이상의 입장은 바탕으로 하여 Princeton 대학의 Moulton 교수는 5 가지 구호를 제시하여 구조주의 언어교육의 표본으로 삼게 되었다.

- 1) Language is speech, not writing.
- 2) A language is a set of habits.
- 3) Teach the language, not about the language.
- 4) A language is what its native speakers say, not what someone think they ought to say.
- 5) Languages are different.¹²⁾

위 구호는 구조주의의 복음처럼 되었지만, 이것을 근간으로 외국문화 속에서 사용될 수 있는 표현을 익히는 구어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청화식 교수법의 주창자의 한 사람인 Nelson Brooks는 수업진행원칙을 11개 항으로 열거하고 있다.

- 1) The modeling of all learning by the teacher.
- 2) The subordination of the mother tongue to the second language by rendering English inactive while the new language is being learned.
- 3) The early and continued training of the ear and tongue without recourse to graphic symbols.

¹²⁾ Moulton, W. *Linguistics & Language Teaching in the United States*, 1940 ~ 1960, In Morhman et al., pp. 86 ~ 89 (1961).

- 4) The learning of structure through the practice of patterns of sound, order, and form, rather than by explanation.
- 5) The gradual substitution of graphic symbols for sounds after sounds are thoroughly known.
- 6) The summarizing of the main principles of structure for the student's use when the structures are already familiar, especially when they differ from those of the mother tongue. (But he is never formally asked to regurgitate these rules).
- 7) The shortening of the time span between a performance and the pronouncement of its rightness or wrongness, without interrupting the response. This enhance the factor of reinforcement in learning.
- 8) The minimizing of vocabulary until all common structures have been learned.
- 9) The study of vocabulary only in context.
- 10) Sustained practice in the use of the language only in the molecular form of speaker-hearer-situation.
- 11) Practice in translation only as a literary exercise in an advanced level.¹³⁾

이 방법은 새로운 습관형성에 중점을 두어 녹음기, 환등기 등 다른 기재를 통해 끊임없는 연습을 해야한다는 점을 Cochran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Language habits are developed from childhood, and it is very difficult to train muscles of the speech organs to make the unfamiliar sounds of a foreign language. But the linguists believe that a learner can be taught to pronounce a foreign language like a native speaker, if he consciously trains his speech muscles to produce the foreign sounds. This can be done by a careful explanation of how the sounds are made, pointing out the differences between these sounds and the sounds of the learner's own language, by imitation of a native speaker, and by constant drill with phonograph records and other oral aids. The drill is the most important part of the process and must be continued to

¹³⁾ Brooks, Nelson *Language & Language Teaching*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 p.142 (1964).

the point of "overlearning" where action becomes automatic.¹⁴⁾

또한 이 방법은 언어학상 행동주의 심리학의 이론적 근거를 두고 있으며 Pavlov의 조건반사설을 기점으로 Watson이 창조한 것을 행동주의 심리학이라 일컫는다. 행동주의 심리학에 따르면 언어습득이란 백지상태 (*tabula rasa*)에서 반복된 강화학습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원리를 Brown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In principle you can adopt one of two extremist polarized positions in the study of first language acquisition. The extreme behavioristic position would be that the child comes into the world with a *tabula rasa*, a clean slate bearing no preconceived notions about the world or about language, and this child is then shaped by his environment, slowly conditioned through various schedules of reinforcement. At the other extreme, you would find a position that claims that the child comes into this world with very specific innate knowledge, knowledge which includes not only general predispositions and tendencies but also knowledge of the nature of language and of the world. Then, through his own volition, he acts upon his environment by developing these bodies of knowledge.¹⁵⁾

이 이론에 큰 영향을 미친 Pavlov의 학습이론이 비록 개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는 있지만 자극과 반응의 원리로 잘 설명해가고 있다. 수많은 반복을 통하여 시행착오를 거쳐 최종적으로 얻어지는 경험을 학습의 도달점으로 보는 것이다.

4. 변형생성 이론

청화식 교수법은 그 이론적 배경이 되었던 구조주의 언어관과 행동주의 심리학의 언어습득 이론의 바탕이 혼들리고 그 불합리한 점이 지적되면서 강경한 비판을 받게 된다.

이 방법은 Noam Chomsky가 1957년에 "Syntactic Structures"를 발간하고, 1959년 행동주의 심리학의 대표격인 Skinner의 "Verbal Behavior"를 서평함에 있어 언어와 언어 학습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내세워 이론바 이론상의 혁명이 일어났다. 먼저 Chomsky가 변형생성문법의 이론을 내세운 "Syntactic Structures"에서 밝힌 그의 입장을 보면,

¹⁴⁾ Cochran, *op.cit.*, p.40.

¹⁵⁾ Brown, H.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40(1980).

A language is an enormously involved system, and it is quite obvious that any attempt to present directly the set of grammatical phoneme sequences would lead to a grammar so complex that it would be practically useless. One requirement that a grammar must certainly meet is that it be finite.¹⁶⁾

구조주의 언어학과는 달리 소리에서 시작하는 낱말이 아니라 문장을 출발점으로 어린이가 경험한 자료를 사용하여 무한한 수의 문장을 생성한다고 하는 입장이다. 이후 Chomsky는 자신의 입장은 더욱 강화하는 인지적 이성주의적 측면에 따른 병형생성문법의 기본태도를 밝히고 있다.

Basic to transformational-generative theory is the distinction between competence and performance. The competence of a speaker-hearer is his intuitive knowledge of the complex system of rules of his language. Evidence of the existence of this underlying competence is provided by his intuitive recognition of the degree of grammaticality of any utterance in the language.¹⁷⁾

언어 활동을 Competence 와 Performance로 구분하고 언어 능력을 중히 여기며, 이는 복잡한 언어체계의 직관적 지식으로 보고 내재적 능력을 다루는 심층구조의 핵심을 추구해 나갔다. 변형생성이론의 대표적인 교수방법은 규칙인지학습이론(The cognitive-code-learning theory)인데 보통 인지적 접근방법으로 불리운다. 이 학습이론은 행동주의와 대조를 이루면서 인간정신의 고유한 능력과 창조력을 바탕으로 한 인지주의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행동주의 입장은 자극에 반응이 결합돼야 한다고 보는 반면 인지주의적 입장은 자극과 자극과의 연합을 강조했다. 이 두 입장은 Robinet는 다음과 같이 비교해서 밝히고 있다.

The behaviorists hold that conditioning is of overriding importance, and they strongly support the concept of over-learning, that is, constant practice until responses to particular verbal cues are automatic. The more recent cognitive psychology, exemplified by Jean

¹⁶⁾ Chomsky, N., *Syntactic Structures*, The Hague : Mouton Publishers, p.18(1957).

¹⁷⁾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The M. I. T. Press, p.3 (1965).

piaget's studies in language development, focuses on the interent capabilities of the human mind and its creative power. For this reason, cognitivists are characterized as mentalistic, in contrast to behaviorists who are often referred to as mechanistic.¹⁸⁾

이 인지주의 입장은 규범주의 심리학파가 주도해 왔는데 형태심리학은 1912년 Max Wertheimer(1880 ~ 1943)에 의해 형성되어 Köhler, Koffka, Lewin 등이 발전시켰으며 학습 현상은 지각과 인지와 밀접한 관련을 지으며 지각의 재체제화 또는 인지구조의 재구조화 등을 강조하며, 정신현상을 심적 요소의 결합이 아니고, 상호의존적인 전체과정으로 여기고 유기체와 환경과의 역동성을 역설했다. 이러한 입장에서 Köhler의 통찰설 (insight theory)과 Lewin의 학습이론이 생겨났다. 이로써 인지심리학의 학습이론과 변형생성문법의 언어관과의 결합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Rivers는 인지적 접근법 (cognitive approach)을 주장하고 있는 Carroll의 입장을 빌어 다음과 같이 그 기본원리를 적고 있다.

In 1965. Carroll had reviewed recent developments in linguistics and psychology, He concluded that the "audiolingual habit theory" was "ripe for major revision, particularly in the direction of joining with it some of the better elements of the cognitive code-learning theory." Neither of these theories, he maintained, was closely linked to any contemporary psychological theory of learning, and both could be improv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appreciable body of knowledge that had accumulated in the area of verbal learning.¹⁹⁾

Rivers는 Chastian이 제시한 인지적 이론에 따른 학습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지는가를 단계별로 보여주고 있다.

Step 1: comprehension of new grammatical concepts which are presented deductively,

Step 2 : practice in selection of linguistic forms to fit the context in exercises.

¹⁸⁾ Robinett, *op.cit.*, pp.161 ~ 162.

¹⁹⁾ Rivers, *op.cit.*, p.49.

Step 3 : the study of reading and listening materials, with some opportunity proved for students to produce messages intended to communicate their thoughts to someone else.²⁰⁾

인지적 접근법은 그 학습방법이 뚜렷이 제안된 것은 없으나 대체적으로 규범론자의 입장을 취하고, 글을 말보다 먼저 배우는 연역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첫째, 외국어 교육 목표는 외국어를 마치 모국어처럼 습득하고 사용하는 데 있으며 이는 외국어의 문장을 생성해내는 언어능력의 터득에 두고 있다. 둘째, 언어행위 즉 의사소통을 가능케 하는 규칙체계를 터득해야 한다. 세째, 언어활동은 의사전달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모든 언어 학습활동은 유의적인 것이어야 한다. 네째, 언어학습의 효과적인 방법은 학생의 습득형태를 고려하여 글이든 말이든 선택해서 치중해야 한다.

III. 각종 교수법에 대한 비판

1.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비판

이 교수법의 기원은 몇 세기 동안 유럽에 보급된 Latin, Greek와 같은 classic language를 복잡한 문법규칙에 의해 번역하는 작업을 주로하며 이 교수법의 목적은 traditional terms로써 그 언어의 문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과 모국어에서 그 언어로 번역하는 연습을 계속함으로서 intellectual discipline만을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언어를 이론적으로 분석하고 complicated rules, paradigms를 다량 기억한다든지 그것을 번역연습에 응용하고 foreign-language text를 모방하여 쓰는 연습이 지극히 중요했다.

그러나 이 교수법이 지적 수준이 높고 추상적인 추리에 흥미가 있는 학생에게는 그 목표가 달성될 수 있었으나 지적 수준이 부족한 학생의 영어학습 초기단계로는 부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²¹⁾

여기 Lado의 말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This involves a complicated mental manipulation of the conjugations and declensions in the order memorized down to the form that might fit the translation. As a result, students are unable to use the language, and they sometimes develop an inferiority complex about

²⁰⁾ *Ibid.*, p.50.

²¹⁾ Rivers, W.M. *op.cit.* p.17(1968).

language in general.

Exceptionally bright and diligent students do learn languages by this method, or in spite of it, but they would learn with any method,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is largely discarded today.²²⁾

이 교수법에서 지적될 수 있는 문제점을 정리해 보면 첫째, 교사의 활동을 지배한 Text의 내용인데 가르친 경험이 없는 학자에 의해 집필된 지적 내용이라는 것이다. 둘째, dead language의 불합리한 문법규칙을 modern language, spoken language의 학습에 응용했다는 것, 세째, 영어를 번역을 통해서 알게 하려는 것, 네째, 수업시 대부분의 시간을 영어연습보다는 영어문법에 관한 장황한 설명으로 허비함으로써 communication skill의 습득을 무시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 교수법에서는 Descriptive Grammar가 아니라 Prescriptive Grammar를 전부한 문법규칙이나 복잡한 terminology를 써서 설명과 분석을 통해 가르치는 Formal Grammar적 입장에서 가르쳐 왔으므로 외국어의 사용능력보다는 그 언어에 관해 모국어로 배우는 결과에 그치게 된 것이다. 이에 대한 더 깊은 내용은 다음 장에서 알아보기로 한다.

2. 직접식 교수법에 대한 비판

직접교수법은 활동을 통해 외국어를 배우는 흥미로운 학습을 제공했고 외국어를 말할 때 겪는 초기의 억제현상(inhibition)에서 벗어나게 하는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비교적 준비상태가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이 밀하므로 부정확한 말을 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고 유아가 모국어를 배우는 것과는 달리 모국어의 장벽을 벗어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이 방법을 대표하는 사람은 Maximilia Berlitz(1852 ~ 1921)로 가장 극단적인 독특한 본보기를 보여주어 이것을 The Berlitz Method라고도 한다. 이 교수법의 논거는 다음과 같다.

A. Direct association of the foreign speech with the learner's thought. This is what is known as "thinking in a foreign language."

B. The constant use of the foreign language without ever using the learner's own language.²³⁾

위와 같은 목적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²²⁾ Lado, Robert,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 Graw-Hill pp.27 ~ 28 (1964).

²³⁾ Berlitz, M.D. *Illustrated Book for Children* New York: Berlitz Publications, p.3(1949).

A. "Teaching of the Concrete by Object Lessons." B. "Teaching of the Abstract by Association of Ideas." C. "Teaching of Grammar by Example and Ocular Demonstration."²⁴⁾

H.E.Palmer, M.West 같은 이는 절충식 교수법을 만들기도 했다. 모든 단계에서 네 가지 기능을 완만하게 기능을 취해 발달하도록 애쓰는 한편 구두의 훈련을 맨 먼저 한다는 입장은 강조했다. Palmer는 이 방법을 9 가지로 요약하여 제시했다.

- 1) Initial preparation
- 2) Habit-forming
- 3) Accuracy
- 4) Graduation
- 5) Proportion
- 6) Concreteness
- 7) Interest
- 8) Order of progression
- 9) Multiple line of approach.²⁵⁾

이 절충법을 수행하기 위한 바람직한 교사상은 상상력이 풍부하고 실험도 잘하는 교사여야 한다. 이는 용법을 중심으로 한 문장구조의 연습에 중점을 두는 기능적 성격을 띠는 것이기도 하다. 이 방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정리해 볼 수 있다.

- 1) 학습자가 완전히 모국어를 개재시키지 않고 외국어로 생각하는 것은 심리적으로 어렵다.
 - 2) 교수과정에서 번역을 사용하지 않은 것은 좋으나 일체의 모국어 사용을 금한다는 것은 학습자의 이해의 정확성을 기할 수 없고 불명료한 외국어 학습만을 발전시키는 경향이 있다.
 - 3) Question-answering은 교사주도 형식이기 때문에 학생 스스로의 말이 시간적으로 또 내용적으로 제약을 받는다.
 - 4) 학습자의 이해 여부는 질문에 대한 대답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 5) 너무 많은 시간소비와 수업지도 지연, 읽기, 쓰기 기능을 경시하게 되고 학생의 발표시간은 적고 교사의 피로만 더해진다.²⁶⁾
- 이상의 제 문제를 살펴볼 때 체계적인 교수내용이 확립되지 않으면 의미를 그릇 이해하거나 구문을 부정확하게 파악하는 등 불완전한 학습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같다. 뛰어난 학생은 별문제이나 그렇지 않은 학생은 순수한 커남식 방법에 의한 학습은 곤란을 느껴 자칫하면 좌절감을 느끼게 하며 학습의욕의 상실을 가져온다고도 볼 수 있다. 지식의 습득이 미지의 외국

²⁴⁾ *Ibid.*, p.3.

²⁵⁾ Palmer, H.E. *The Principles of Language-Study* London:Harrap(1964 Reprint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pp.37~38(1921).

²⁶⁾ 정경섭, 외국어 교육의 기초와 실제, 서울:동국출판사, p.203(1982).

어와 약간의 시청각 자료 등의 도움만으로 과연 가능한가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미숙한 어린이가 좌절감을 느끼는 등 처음부터 억제현상과 감정이입 등의 요인에 영향을 주어 효과를 못 올릴 수 있는 것이다.

3. 청화식 교수법에 대한 비판

행동주의 심리학의 강력한 뒷받침을 받으면서 구조주의 언어학 이론을 딛고서 등장한 Audio Lingual Method 는 1930년대가 발아기였다고 한다면 40년대는 개화기였고 50년대는 전성기였다고 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언어 기술에 있어서 가장 과학적이라고 자처하던 구조주의 언어학이 변형문법으로부터 신랄한 비판을 받게 되고, 인간은 모방과 유추에 의한 습관형성을 통하여 언어를 습득한다고 주장하던 행동주의 심리학의 언어학습 이론이 인지주의 심리학으로부터 비판을 받게 되자 자연히 Audio-Lingual Method의 교수이론도 흔들리게 되었다.

Cochran은 이론적 측면에서 본 결점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Some people feel doubt the idea that aural-oral approach is always the most effective. Some feel that the mastery of oral-aural skills does not make reading and writing much easier, as, certainly in English, the written language is so often different from the spoken, students may learn to read and write the spoken language with ease, but the problem still remains of teaching them how to read books, Some feel that those interested primarily in reading do not need to spend time in aquiring perfection in speaking.²⁸⁾

또한, 지나치게 형태에만 의존하여 구조형에서 일어나는 불규칙성 등을 일일이 다룰 수 없으며 의미를 경시하므로 상황이 바뀌는데 따른 활용도가 미흡하고 자칫하면 읽기와 쓰기가 미흡하게 되어 말하기에 완벽을 요구하는 일이 지나쳐 혀되며 시간을 낭비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들 수 있다.

Rivers도 청화식 교수법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 1) Students may progress like well-trained parrotsable to repeat whole utterences perfectly when given a certain stimulus, but

²⁷⁾ 명노근, 언어교육 제 2권 제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25(1970).

²⁸⁾ Cochran, *op.cit.*, pp.42~43.

uncertain of the meaning of what they are saying and unable to use memorized materials in contexts other than those in which they have learned them. Students must be trained from the first lesson to apply what they have memorized or practiced in drills in communication situations contrived within the classroom group.

2) Techniques of memorization and drilling can become tedious and boring, causing fatigue and distaste on the part of the student.

3) Students may not understand the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the operations they are performing. As a result, they may have difficulty in using these structural patterns for expressing their own meanings.

4) The most gifted students sometimes become bored long before other students have had enough structured practice to develop firm control of morphological and syntactic associations.²⁹⁾

박의재는 청화식 교수법에 대한 언어교육 이론가들이 제기하는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³⁰⁾

- 1) 단순한 mim-mem의 연습에서 Communication으로의 전이 곤란
- 2) language competence와 language performance의 차이 무시
- 3) 쓰기와 읽기도의 전이 곤란
- 4) 수업준비 작업량의 과다.

Audio-lingual Method는 입과 귀를 통한 교수법이며 國語는 reading과 writing으로 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며 그 자체가 아니다.³¹⁾

4. 변형생성방법에 대한 비판

Fries와 Lado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구조주의 언어학은 일대 혁신을 가져온 것이 사실이나 1957년 Chomsky의 'Syntactic Structures'의 출간은 구조언어학 이론과 이에 근거를 둔 언어교수방법을 반박하고 변형생성이론을 내세웠지만 변형생성이론이 언어이론으로서는 보다 포괄적인 것이 사실이나 교육의 실제에 있어서는 구조주의 언어교수법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어서 이용하기 까지에는 아직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²⁹⁾ Rivers, *op.cit.*, pp.47~48(1981).

³⁰⁾ 박의재, 영어학습지도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 p.56(1983).

³¹⁾ 박의재, *Ibid.*, p.56.

견해라 하겠다.

Richards 가 변형문법을 비판하는 이유중의 하나가 곧 언어교육에 있어서 그 효용성에 대한 의문이라고 볼 수 있다.³²⁾ 이러한 인지학습교수법의 의문점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변형생성이론은 언어능력과 관계가 있으므로 실제의 언어수행에는 별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다. 즉 학습자들이 만약 영어로 말을 하려면 이론 언어학이 어떠한 상태에 놓여 있든 영어로서 인정할 수 있는 문형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즉 학생들의 입장에서 보면 언어에는 구성요소가 있으며 영어로 의사소통을 하려면 그 요소들을 올바르게 배열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파악해야 하며 ‘말하는데 관한 것’이 아니라 ‘말하는 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연습이 절대로 필요하다고 본다. 학생들에게 어떤 추상적인 기초구조 즉 심층구조만을 주입시켜 그들이 얼마 안가서 영어를 말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다. 둘째, 변형은 길고 복잡하며 심층구조는 추상적인 실체이므로 실제로 적용시키기가 어렵다고 본다. 그래서 인지학습교수법은 이론적으로는 가장 적합하다고 보지만 이것을 변화시키는 과정에 대한 직접적인 기술이 아직 충분히 발달되지 못하였다고 봄으로 이런 점에서 언어학자와 교사간에 난점이 생긴다고 본다. 세째, 교실현장은 인위적인 것이므로 학습자가 목표어를 배우는데 자연스러운 기회가 부족한 것을 도와주기 위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변형생성이론은 그와 같은 교육적인 방법론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교사들은 언어학자들이 학습교재와 교육적으로 의미있는 변수(Variables)들의 요소들을 조직하는 기초를 제공해 줄 것을 요망한다.³³⁾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Chomsky 가 지적하는 것처럼 변형문법학자들에게서 쉽게 나오지 못한다고 말할 수 있다.

“... I am, frankly speaking, rather skeptical about the significance, for the teaching of languages, of such insights and understanding as have been attained in linguistics and psychology... It is even likely that principles of psychology and linguistics, and research in these disciplines may supply insights useful to the language teacher... It is the language teacher himself who must validate or refute any specific proposals.”³⁴⁾

즉, Chomsky 자신도 언어학적 이론이 외국어 교수법을 해결할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고

³²⁾ Richards, I.A. *English Language Teaching* XXII-1 pp.3~9(1967) XXII-2 PP.101 ~ 106(1968).

³³⁾ Lewis, K.R. *The Modern Language Journal*, LVI, 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 p.6(1972).

³⁴⁾ Chomsky, N. *Linguistic Theory*, Cited by Lewis, *Ibid.*, p.6.

있으며 경험을 쌓은 교사에 의한 언어학적 통찰력이 이를 효용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IV.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재 조명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에 나타난 주된 교수법을 고찰해 보았다. 이상의 개관을 보면 글을 중심으로 언어를 학습해야 한다는 규범론자와 말을 먼저 가르쳐야 한다는 행동론자로 구분된다. 규범론자들은 우선 규칙을 설명하고 나서 그 응용을 실례로 보여주는 연역적 교수형식에 주로 의존하고 행동론자들은 어떤 형식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열거하거나 듣고 사용한 후에 학생 자신에 의해 일반화한다고 하는 귀납적 학습방법에 의존한다 할 것이다. 이제 연역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을 귀납적인 청화식 교수법과 비교하여 살펴 보기로 한다.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새로운 언어 및 언어학습 이론에 입각한 신 교수법 청화식 교수법은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큰 대조를 이룬다.

문법번역식 수업은 문어체로 쓰여진 독본을 사용하여 읽기와 쓰기를 위주로 하는 반면, 청화식 수업은 구어체로 쓰여진 대화본을 사용하여 듣기와 말하기를 위주로 하게 된다. 문법지도에 있어서도 문법번역식 수업에서는 모국어를 매체로 하여 연역적 설명을 통한 규칙인지를 위주로 하는 반면, 청화식 수업에서는 체계적으로 예문을 제시하여 단계적으로 연습시킴으로써 언어습관을 형성하고 모국어에 의한 설명을 통하지 않고 학습자들 스스로가 유추에 의하여 귀납적으로 문법을 터득하도록 유도한다. 결국 두 교수법은 이론적 배경은 물론이고 수업 실제에 있어서도 전혀 다른 정반대의 양상을 띠고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결충에 의한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원리적으로 고찰할 때 둘 중의 하나를 취하고 다른 하나는 버려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 목표가 문법규칙은 물론 실용적인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의 기능을 학습시키는 종합적인 교육 목표를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나 청화식 교수법 어느 하나에만 의존해서 효율적으로 달성하려는 것은 두 교수법을 검토해 볼 때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그 이론적 토대를 이루고 있는 대립적 양상들을 현실적 차원에서 재검토하여 불필요하거나 현실적 타당성이 없는 것들을 철회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대립적인 양상을 띠는 문자언어와 음성언어, 연역적 설명과 귀납적 유추, 번역 연습의 면에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다.

1. 음성언어와 문자언어

구조주의 언어학자 Fries는 외국어 교육의 목적이 원서의 해독에 있는 경우에도 그 언어의 기초를 터득하는 것은 음성 언어를 통해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³⁵⁾ 이러한 구조주의 언어학의

³⁵⁾ Fries, C.C.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6(1945).

사상을 이론적 토대로 삼은 청화식 교수법은 문자언어를 등한시한 것은 아니지만 ‘언어는 글이 아니고 말’이라는 새로운 언어관을 직접 외국어 교육에 적용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음성언어의 우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음성언어의 우위 사상은 외국어 학습과정을 유아의 모국어 습득 과정과 동일시한 것으로 성인의 인지적 능력 및 자연적인 모국어 습득 환경과 인위적인 외국어 학습 사이의 차이를 무시한 것이었다.

또한 구조주의 언어학자들이 주장하듯이 글이 말소리의 기록에 지나지 않은 것이라면 글과 말소리 사이에 항상 일대일의 대응관계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소리글자라 일컬어지는 어떤 낱말이 철자는 같은데 발음과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고 발음은 같은데 철자와 뜻이 다른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면 말소리와 글자 사이에 항상 일대일의 대응 관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말과 글은 독자적 체계로서 취급하고 같은 비중과 가치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음성언어와 문자언어를 독립된 체계로 취급할 때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과 청화식 교수법은 상호 보완하는 교수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전통적 교수법은 원칙적으로 음성언어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교수법으로서 문법을 강력한 수단으로 삼아 모국어에 의한 번역을 통하여 외국어로 쓰여진 원서에 대한 독해능력을 기르는 것을 목표로 하였기 때문에 외국어 교육 목표에 비추어 볼 때 음성언어의 훈련을 경시했던 것은 전통적 교수법의 치명적 결함이었다. 따라서 음성언어의 훈련을 위해서는 전통적 교수법은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청화식 교수법의 대화 학습 방법을 비롯하여 여러 신 교수법들의 음성언어 훈련방법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청화식 교수법을 비롯한 각종 신 교수법들이 전통적 문법번역식 읽기 지도 방법에 대해서도 전면적인 비판을 가하고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존재 가치를 전면 부인 함으로써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게 된 것이다. 청화식 교수법이 외국어 학습의 기초를 음성언어의 훈련에 두었을 뿐만 아니라 모국어의 사용을 제한하고 번역을 금지시켜야만 원서를 독해할 때 직독직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적 이론은 우리나라의 영어교육의 경우 교사의 능력이나 수업시수 그리고 외국어 이외의 교과를 공부하여야만 하는 학습자들의 입장은 고려할 때 현실적 타당성이 아주 적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결국 문자언어, 특히 읽기의 지도에 있어서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필요성과 가치는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말하자면 문자언어의 교수법으로서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필요성과 가치를 인정한 후에 음성언어의 교수법으로서 청화식 교수법을 도입할 때에 두 교수법은 자체의 결함을 시정하는 방향으로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문법과 번역에 의한 조합하면서도 필연적인 읽기학습과정을 가능한 한 단축시킬 수 있도록 과학적인 연구를 계속함으로써 직독직해는 어렵더라도 가능한 한 빨리 속독속해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기 위한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2. 인역적인 방법과 귀납적인 방법

교실 수업에서 연역적 설명과 귀납적 유추를 규범적으로 정하고 일방 통행식 수업진행을 하는 것은 위험하고 부당한 일이다. 언어 심리학의 연구 결과에서 언어 행위는 단순한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규칙의 지배를 받는 창조적 행위라는 증거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외국어 학습의 경우,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과 제시되는 언어의 양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그 많고 복잡한 언어규칙들을 학습자의 유추력에만 맡겨서 터득시키려는 것은 무리한 일인 것이다.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하는 어린이의 경우 언어습득의 후기 단계에서 의문문, 부정문, 복문 등의 변형 문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말하는 시기가 있다.³⁶⁾

부정문 : I didn't did it. I didn't caught it.

의문문 : What I did yesterday? What did you doed?

성인들이 이와 같은 문장을 사용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렇다면 어린이의 언어습득과정이 반드시 모방과 반복에 의한 습관형성과정이라고만 볼 수는 없다. 또한 관계절이 들어있는 긴 문장을 어린이들에게 따라하도록 요구할 경우 어린이는 심층구조에 여러가지 규칙을 적용시켜 간단한 문장으로 변형시켜 반복한다는 것이다.³⁷⁾ 예를 들면 “The ball that is rolling down the hill is black”은 “The black ball is rolling down the hill”이라고 반복하며 “The boy who's in the sandbox is wearing a red shirt”은 “The red boy is in the box”라고 반복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언어행위는 단순한 습관적인 행위가 아니라 인간 마음의 심층에서 규칙의 제어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규칙지배적인 창조행위일 가능성이 더 많다. 모국어로서 습득할 경우에는 이러한 규칙들은 별도로 배우거나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언어에 충분히 노출만 시키면 저절로 습득이 된다. 그런데 학교에서 실시되는 외국어 학습은 자연적인 환경이 아닌 인위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표 언어에 노출되는 시간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짧은 기간에 가능한 한 효과적으로 외국어의 체계와 규칙을 습득시키기 위한 지름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도 연역적 문법설명은 필요한 것이다.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외국어를 배우는 시기가 지적인 능력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중학교 시절부터 시작된다는 점에서도 유의해야 할 일이다. Piaget는 아동의 인지발달과정을 다음과 같이 크게 네 단계로 나누었다.³⁸⁾

1. 감각-운동 지능기 (0 ~ 2세) : 이 시기의 행동은 근본적으로 운동적이다. 이 때에 열

³⁶⁾ Clark, H.H. & Clark, E.V.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Inc, pp.349 ~ 354(1977).

³⁷⁾ Brown, R.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pp.35 ~ 36(1980).

³⁸⁾ 정태위, 빼아제의 인지 발달론, 교육신서 19, 서울 : 배영사, pp.50 ~ 51(1981).

마간의 인지 발달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린이들은 아직까지 개념적으로 사고하지는 못한다.

2. 전조작적 사고기 (2~7세) : 이 시기의 특징은 언어 활동이 활발하여 개념이 빠른 속도로 발달한다.

3. 구체적 조작기 (7~11세) : 이 시기의 아동은 가역성 (Reversibility)의 개념을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으며, 논리적 사고를 구체적인 문제 해결에 적용시킬 능력을 발달시킨다.

4. 형식적 조작기 (11~15세) : 아동의 인지 구조가 발달의 최고 수준에 이르는 때이며 논리 (logic)를 모든 종류의 문제해결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된다.

우리나라의 중학생들은 연령적인 면에서 Piaget의 인지발달 단계의 최종기인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한편 Penfield는 인간의 언어습득 능력에 대해서 13세 이후에는 언어에 대한 천부적 소질이 감퇴되고 그 대신 논리적으로 추리하는 역량인 이성에 대치한다고 하였다.³⁹⁾

따라서 문법규칙을 설명에 의하여 의식적으로 인지시키고 연역적 논증을 통하여 언어 지식을 증가시키는 전통적인 교수법이 효과적일 수가 있는 것이다.

3. 번역 문제

전통적 교수법에서 번역연습은 중요한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번역을 통하여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시키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설명을 통하여 배운 문법규칙들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시키려는 것이다. 그런데 청화식을 비롯한 대부분의 신 교수법에서는 번역연습은 하나의 금기로서 적어도 이론상으로는 전적으로 배제되어 왔다. 신 교수법에서 번역을 배척하는 이유는 외국어 학습에 간접 작용하는 모국어의 습성에 가세하여 번역이 직독직해의 목표에 반작용하리라는 생각때문이었다.⁴⁰⁾ 그리하여 신 교수법에서는 번역연습은 고급 단계에서 번역사 양성 과정에서나 시킬 전문적인 기술이라 단정하고 일반 외국어 교육에서는 번역을 금지하고 초기 단계부터 목표 언어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자연적인 언어 환경을 떠나 불완전하고 인위적인 교실 환경에서 성인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외국어 교육에서 번역의 활용없이 언어학습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할 중대한 문제다.

송요인은 번역의 필요성을 솔직하게 시인하여야만 그 문제점을 극소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⁴¹⁾

“필자의 견해로는 한국 중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의 경우 제아무리 철저한 audio-lingualism 을 실시한다손 치더라도 이들의 의식 혹은 반의식 속에서 전개되는 translation 행위는 배제

³⁹⁾ 조명원, 영어 영문학 32, 한국영어 영문학회, p.141(1969).

⁴⁰⁾ 문 용, 언어교육 제 3권 제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p.30(1971).

⁴¹⁾ 송요인, op.cit. p.6.

할 수 없다고 본다. 제 아무리 audio-lingual response가 빠르고 동시적이라 해도 그 저변에는 그것이 외국어로써 행해지는 한 어떠한 형태로든지 translation이라는 절차가 수반된다고 보는 것이다.”

Paulston도 어휘지도에 있어서 번역을 적극 이용할 것을 제안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⁴²⁾

“If the teacher knows the students'native language, the glossing of individual words in the mother tongue is by far the most efficient way of explaining a word at this level. We realize that such a procedure sounds like heresy to many, but there is considerable psycholinguistic evidence to support such a viewpoint, and our own experience both in teaching and learning foreign languages bears out, We are firmly in favor of translation of individual words as a technique for teaching vocabulary at the beginning level.”

Rivers도 간단한 모국어의 어구나 문장을 외국어로 번역시키는 연습이 외국어 학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⁴³⁾

“On the other hand, students might be asked to transpose rapidly short stimulus sentences from the native language to the foreign language in translation drills. In this case the native-language stimulus, a simple, uncomplicated utterance, provided a valuable aid for eliciting utterances in the target language.”

이상의 주장들로 보아 우리나라의 영어 교육에 있어서 번역연습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번역을 선용하는 방법을 개발함으로써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시사를 얻게 된다. 물론 국문 영역 연습을 통하여 올바른 영작문 기능을 기를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고, 번역 기술이 중등 학교 수준을 넘어선 고급 기능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문법번역 교수법에서 번역 연습을 시키는 것은 학습자에게 영작문 혹은 번역 기술을 가르치려는 목적에서라기 보다는 학습자들이 문법 규칙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 주려는 것이다. 말하자면 전통적 교수법에서는 번역 연습을 통하여 모국어와 외국어 사이에 개재되는 언어구조, 사고방식 및 문화의 차이를 의식적으로 인지시킴으로써 그 간섭을 적극적으로 극복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⁴²⁾ Paulston, C.B.& Bruder, M.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ssachusetts:Winthrop Publishers, Inc., pp.171~172(1976)

⁴³⁾ Rivers, *op.cit*, p.43.

V. 결 론

지금까지 외국어 교육 이론의 역사적 변천 과정과 각 교수법의 장·단점을 고찰해 보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검토 비교해 보았다.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native speaker의 환경을 떠나고 특히 초등교육 단계를 넘어선 시기에 실시하는 교육 현장에서 그 활용 방법이 어떠한 것이든 과연 grammar의 설명이나 translation의 활용이 없이 교수가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논조는 얼핏 보아 문법·번역식 교수법의 응호라기보다는 이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하고 이의 단점을 극소화시켜 교육현장에서 교육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야 한다는 데에 있다.

외국어 교육에 있어서 어떤 교수방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는 어느 한 교수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또 언어학의 이론만을 토대로 하는 것도 옳지 않으며, 교수방법의 이론과 현실적인 여건의 적시가 종합된 것이 토대가 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의 외국어 교육 목표에 비추어 볼 때 문법·번역식 교수법은 음성언어의 기능을 무시한다는 커다란 결점이 있다. 그러나 직접교수법이나 청화식교수법 등의 신 교수법들도 음성언어를 중심으로 하여 듣기와 말하기의 기능을 먼저 훈련시키고 음성언어의 사용 능력을 토대로 하여 문자언어에 의한 읽기와 쓰기의 훈련을 시킨다는 현 시대에 합당한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나 외국어 교육 현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무시하고 지나치게 엄격한 교수 원칙을 내세워서 교육 실재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야기되고 있다. 또한 인지학습 이론이나 언어심리학적인 연구 결과에 의하면, 학습 초기부터 문자 언어를 도입하고 모국어를 사용하여 문법을 설명하며 번역 연습을 학습 방법으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외국어 교육 방법을 배척하기보다는 선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나라의 외국어 교육 특히 영어 교육에서 가장 중심적이고 중요한 교수법이 다름아닌 문법·번역식 교수법이라는 점을 인식할 때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어 교수법에 관한 토의는 어느 교수법 못지 않게 중요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어 교수법 논의는 전통적인 교수법과 신 교수법들의 극과 극의 대립과 비판보다는 문자언어와 관련된 읽기, 쓰기의 기능 훈련에 있어서는 효율적인 지도 방법 및 번역지도 방법을 전통적인 교수법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며, 듣기와 말하기의 기능에 있어서는 음성언어를 중시하는 각종 신 교수법들에서 찾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따라서 생산적인 외국어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해 비판만 하기보다는 그 장·단점을 규명하여 장점을 살려 나가면서 단점을 새로운 외국어 교수이론에 의해 보안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언어 학습 이론에 입각한 문법·번역식 교수법에 대한 검토는 큰 의미가 있으

며 앞으로도 보다 철저한 검토와 이에 대한 재 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1. 명노근, 언어교육, 제 2집 제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1970)
2. 문 용, 언어교육 제 2권 제 2호,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1971)
3. 박의재, 영어학습지도의 이론과 실제, 학문사(1983)
4. 송요인, 영어교육 제 16호, 한국영어교육학회(1978)
5. 이계순, 영어교수법, 한국영어영문학회(1979)
6. 이상기, 영어교육 제 12호, 한국영어교육학회(1976)
7. 정태위, 뼈아제의 인지 발달론, 교육신서 19, 배영사(1981)
8. 조명원, 영어영문학 32, 한국영어 영문학회(1969)
9. 조석주, 영어교육 제 14호, 한국영어 교육학회(1977)
10. Berlitz, M.D. *Illustrated Book for Children* New York:Berlitz Publications(1949)
11. Brooks, Nelson, *Language & Language Teaching*, New York: Harcourt, Brace & World(1964)
12. Brown, H.D.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Hall, Inc.(1980)
13. Chomsky, N. *Aspects of the Theory of Syntax*, Cambridge, Mass.: The M.I.T. Press(1965)
14. Clark, H.D.& Clark, E.V. *Psychology and Language*, New York:Harcourt Brace Jovanovich, Inc.(1977)
15. Cochran, Anne, *Educational Services*, Washington(1952).
16. Diller, K.C. *Generative Grammar, Structural Linguistics and Language Teaching*, Rowley: NewburyHouse Publishers(1971)
17. Fries, C.C., *Teaching and Learning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Ann Arbor: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1945)
18. Lado, Robert, *Language Teaching: A Scientific Approach*, New York, Mc Graw-Hill(1964)
19. Lewis, K.R. *The Modern Language Journal LVI-1*, Transformational-Generative Grammar(1972)
20. Moulton, W. *Linguistics & Language Teaching in the United States 1940~1960*, In Morhmans et al.(1961)
21. Palmer, H.E, *The Principles of Language-Study*, London: Harrap,(1964 Reprinted by Oxford University Press)(1921)
22. Paulston, C.B.& Bruder, M.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echniques and Procedures*, Cambridge Massachusetts; Winthrop Publishers, Inc.(1976)
23. Richards, I.A, Why Generative Grammar Does Not Help: 1 & 2 *English Language Teaching*, XX11-1(1967), XX11-2(1968)
24. Rivers, W.M. *Teaching Foreign-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 London: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1981)
25. Robinett, B.W, *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ynage)*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1978)

A Review of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s in Teaching Foreign Language

Seon Hyong-Song

Dept. of Liberal Arts

Kwang-ju Health Junior College

>Abstract<

This Study is designed to delve in an effective way of application of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in teaching foreign language in Korea with analizing and considering its own merits and weak points.

English teachers had chiefly depended on Grammar-Translation Method for a long time in teaching English in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way of application of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The researches into Grammar-Translation Method, Direct Method, Audio-lingual Method, and Cognitive Code Learning Method showed that different methods resulted in different effect in learning language skills. Among others, Grammar-Translation Method was more effective in teaching for reading and writing, Audio-lingual Method for listening and speaking. Thus, in spite of weak point of spoken language skills,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seems to have many practical merits. And the Grammar-Translation Method should be supplemented with the other methods like Audio-lingual Method. In addition, deductive explanation of grammar and practice in translation are not just interfering factors, but also can be beneficial factors in learning a foreign language.